

주일가정예배 순서

2021년 3월 7일 주일예배

인도자 : 가족 대표

기 원 **인도자**

- 1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 2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 3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 4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 (시편 19:1-4)

지혜의 근본이 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간의 모든 인생사를 아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인도하여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당장의 고난과, 눈앞의 위협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눈을 들어 나의 도움의 어디에서 오는지 깨달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274장** **다같이**

1.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소서
물가지고 날 씻든지 불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2. 내 어둔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맘 주옵소서
물가지고 날 씻든지 불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3. 정결한 맘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비치오니 이러한 맘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가지고 날 씻든지 불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4.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 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가지고 날 씻든지 불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기 도 **가족 중**

성경봉독 **사무엘상 19:18-24** **인도자**

18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뿔으로 가서 살았더라
 19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뿔에 있도다 하매
 20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21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22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뿔에 있나이다
 23 사울이 라마 나뿔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뿔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24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설 교 “라마 나뿔의 기적” 인도자

기 도 설교자

찬 송 301장 다같이

1.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피 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2.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3. 주님 다시 뵈을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1. 코로나 19 사태의 빠른 종식과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헌금안내
 중앙교회 공식계좌로 이름과 헌금종류를 적어 송금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름+감사” / “이름+주일” / “이름+십일”
 중앙교회 공식계좌 : 기업은행 022-046724-04-012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중앙교회
3. 거리두기 2단계 조정으로 좌석 20%까지 참여가 가능합니다(중앙교회 예배당 330명) 현장
 예배에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라마 나웃의 기적”

(사무엘상 19:18-24)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군왕은 다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서 사울을 극복하고 통일된 이스라엘이라는 왕정국가 나라를 세워 실제적인 개국을 성공시킨 왕일 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크게 번영시킨 위대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의 증거에 의하면 그는 매우 복합적인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매우 아름다웠던 미소년이고 충성스러운 목자였다가 노래를 아주 잘하는 시인이며 동시에 유능한 전사이기도 했으며 책임감 있는 리더로서 등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윗 삶의 이토록 많은 다양한 국면들과 특성들 가운데 정말 다윗의 본질적 내면은 어떤 것일까요? 군왕으로서 그리고 실제적인 개국의 왕으로서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많은 그의 삶의 다양성들을 보면서 그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리고 잊지 못할 그의 평생을 형성하고 어떤 위기에서도 그를 지켜준 그의 본질적 경험이 어디에 있을지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성경에서 보여준 다양성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가 수많은 시편을 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편들은 한결같이 가장 깊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던 수많은 위기를 극복한 그가 비록 주변의 세계와 사회의 현실들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지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는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고 모든 역경을 극복하면서 결국 주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다는 불굴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시편에 남겨놓은 그 불굴의 신앙은 어디에서 배웠을까요? 끊임없이 쫓기고 자기를 따르는 소수의 사람들과 더불어 은밀하게 숨어지내면서 근근이 이어져야 했던 그의 삶 속에서 언제 그가 그런 불굴의 신앙을 배웠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시해줍니다. 다윗이 아직 어렸을 때, 물론 어느 정도 유능한 전사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그는 사울의 질투 앞에 하루살이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몸을 의탁하기 위해 라마 나웃으로 도망쳐 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사무엘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라마 나웃은 어떤 곳이었나요?

그곳은 놀라운 곳입니다! 일단 외관상으로 보아 그곳은 선지자 학교, 오늘날 신학교였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그곳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의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여기에 보면 분명하게 “선지자 무리”라고 표현해줍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 수장으로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무리는 무엇을 위해 모인 것일까요? 이 무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기를 배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갈 수 있는가를 간구하면서 그 특수한 경험을 전수받기도 하며 또한 새로운 영성 체험을 위해 간구하는 그런 전혀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라는 것을 제시해줍니다. 바로 신학교이지요. 다윗은 거기에서 살아있는 영성적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

것이 다윗이 이루어진 진정한 근본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 공동체는 얼마나 은혜로운 공동체였나요? 거기에는 악의를 품고 다가오던 자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스스로 자신을 내려놓고 죄를 회개하며 자신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예언을 하게 되는 곳입니다. 악한 자라도 그 공동체와 만나면 변하게 되는 놀라운 영성이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이런 공동체를 우리는 이루기를 원합니다. 중앙성결교회가 그렇고 우리 서울신학대학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훈련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 1) 집에서의 편한 복장 보다 단정한 복장을 입습니다.
- 2) 본인이 사용하는 성경책을 준비합니다.
- 3) 온라인 예배는 10분 전에 미리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예배 화면과 볼륨을 준비합니다. 가급적 화면이 큰 컴퓨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4) 가족이 함께 온라인 예배 참여시에는 각자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말고 컴퓨터 같은 가장 큰 화면 하나로 함께 드립니다.
- 5) 주일 가정예배서를 이용하시는 가정은 미리 가족 수 만큼 순서지를 준비합니다. 설교는 설교자만 설교 요약본을 준비합니다.
- 6)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 정성껏 봉헌합니다.
- 7) 온라인 예배 참석과 이름을 남깁니다.
- 8) 예배 후에 가족들과 함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 9) 코로나19사태의 퇴치와 치유,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